

[ 사회 ]

■ 전남 영어교사, 美 전문가 초청 영어수업 들어보니



14일 전남교육연구원서 미국무부 소속 레슬리 베커먼교수(맨오른쪽)가 모둠별 영어학습에 대해 교사들과 토론하고 있다. /위직림기자 jrw@kwangju.co.kr

“취지 좋지만 고교 현장 적용 무리 초·중학교부터 순차 시행해야”

“영어로 하는 수업, 취지는 좋은데 갈 길은 멀어요. 전에도 해봤지만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입시 교육이나 하라’며 학부모들부터 항의 전화가 오기 일쑤죠. 교사들 능력도 따져봐야 되고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영어공교육 활성화, 이른바 ‘영어몰입교육’에 대한 전남지역 교사들의 반응이다. 지난 11~14일 전남도교육연구원(원장 윤기선)이 마련한 ‘미국무부 영어교육전문가 초청 영어교육 워크숍’에 참여한 도내 교사 30명은 큰 틀에는 찬성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사들은 이번 연수에서 미국무부에서 온 ‘진짜 영어강사’들로부터 다양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전수받았으나 한국교실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초·중학교 수업에는 당장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교습법을 배울 수 있어 유익합니다. 하지만 수능을 앞에 둔 고등

학교 교실에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 평가제도와 여건 속에서 영어로 하는 수업에는 한계가 있고,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영어교사가 전체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신화옥(여·36·목포교) 교사는 “이번 연수에서 토론 위주 학습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 과제를 수행하면서 영어능력을 높이며, 인터넷·영화·게임 등 보조자료를 적극 활용해 말하고 쓰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교습법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과거 전남교원연수원에서 실시한 JLP(전남평귀지프로그램) 이수한 후 학교에서 이같은 수업을 진행하면 곧바로 학부모에게서 수험생에 필요한 수업이나 하라는 항의 전화가 오곤 했다”며 “이번 연수에서 배운 교습법을 고교학생들에게 접목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문항철(54·매산교) 교사는 “현재 듣기와 독해 위주 시험평가가 쓰기와 말하기로 바뀌지 않으면 이러한 수업은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평가와 교습법의 연계를 강조했다. 이번 연수는 미국 국무부가 비영리 민간 단체인 영어교육을 위해 고안한 대학과 공동으로 개발한 교습프로그램인 자카르타 주재 미켈러(Michael Rudder) 박사의 토론티 강의를 토대로 진행됐다. 미켈러 박사는 효과적 영어 학습법에 대해 “영어교사가 알기 어렵고 문법에서 탈피, 의사전달 중심으로 가르쳐야 한다”며 “유용한 표현들을 의미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성보다는 유창성을 고려해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로스쿨 예비인가 심사 결과 원하는 대학 개별 공개”

법학교육위원회 검토

법학교육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심사점수를 원하는 대학에 한해 개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학교육위원회는 15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심사점수 공개 방안을 논의, 이 같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로스쿨 예비인가 심사 결과에 대한 불평정 논란이 커지고 대학들의 소송 움직임이 잇따르자 지난 4일 심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면서 “법학교육위원회 논의를 거쳐 심사점수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들도 심사 결과에 불복해 심사 총점과 구체적인 평가기준, 세부 기준별 점수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해 왔다. 법학교육위원회는 예비인가를 신청한 41개 대학의 점수를 일괄 공개할 경우 공개를 원치 않는 대학까지 포함해 대학별 서열이 그대로 드러나

논란이 더 크게 야기될 수 있다고 보고 원하는 대학에 한해서만 점수를 개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 대학이 정보공개 청구 형식 등으로 심사점수 공개를 요청해 오면 해당 학교의 점수만 통보해 주겠다는 것이다. /연필뉴스

목조 문화재에 화재 감지기

광주 지역 목조 문화재에 화재감지기 설치가 추진된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15일 시내 27개 목조 문화재 가운데 감시원이 상주하는 곳에 대해 단독 경보형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우선 시 지정문화재인 김용화 가옥 등 복구에 있는 목조 문화재 3곳에 이날 화재감지기를 설치했다. 이 감지기는 불이 났을 경우 연기 또는 열을 감지, 경보음을 울려 화재 통과를 촉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연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지방법원 부장급 이하 판사 784명 전보

대법원은 15일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이하 법관 784명에 대한 전보인사 및 신입법관 96명의 임용을 21일자로 단행했다. 대법원은 이번 정기인사에서 사법연수원 22기 판사들을 처음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하고, 연수원 17·18기 부장판사들을 서울내 지방 부장으로 발령하는 등 195명의 지방 부장판사와 589명의 단독·배석판사를 일선 법원에 배치했다. 대법원은 “인사에 있어서 법관들의

의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하면서도 법관의 전문성 활용, 재판역량 강화, 효율적 인력운영 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연수원 36기 1명과 37기 95명을 신입판사로 임용했다. 법조일원화 계획에 따라 작년 12월 임용된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 출신 신입법관 18명도 10주간의 실무 연수를 마친 뒤 본인의 희망과 경력, 연수결과 등을 고려해 전국 지방법원에 배치했다. /연필뉴스

인사

- ◇전보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용일, 김하늘, 문준필, 유승관, 유승룡, 이우홍(사법연구) ▲목포지방법원 이승환 ▲장흥지원장 구희근 ▲순천지원 박영태 ▲가정지원장 김재영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성주, 손진홍, 송혜영, 이승엽 ▲전주지법 소재지 근무 강화석, 김상근, 박현형

-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민정, 송기석, 양영권, 이병주, 이양희, 이은혜, 장용기, 최영남, 한기수 ▲목포지원 김진환, 정지영, 조영호 ▲순천지원 김대현, 김성준, 유재광, 정우정 ▲해남지원 박정제, 이영남 ◇보임 <광주지방법원 판사> ▲박미화, 이정재 ◇임명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미진, 김유정, 김지연, 서정희, 송명주 ▲순천지원 문경훈

독립유공자·가족 의료비 지원

광주시 내달부터

광주시가 독립유공자와 가족들에게 의료비를 무상지원한다. 시는 “조국독립을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배우자, 자녀, 손자)들의 생계를 돕고 자공심을 높여주기 위해 오는 3월부터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되는 의료비는 입원치료비를 제외한 외래진료와 약품 구입비 가운데 본인 부담금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예산 2천400만원을 확보, 광주시 서구 상무병원·상무세브란스 약국과 의료비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광주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 153명이 의료비 혜택을 받게된다. 단, 의료급여 1종 수급자(민간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된다. 시는 의료비 지원을 위해 독립유공자와 가족들의 명단을 파악, ‘독립유공자 진료증’을 지원대상자들의 주소지로 발송하고 있다. 독립유공자들은 진료증을 지정병원과 약국에 제시하면,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 062-613-3223. /윤필기자 penfoot@

타르 피해 전남 어민 상경 투쟁

2,000여명 18일 서울 집회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유출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 농민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연다. 영광·무안·신안군 주민 2천여명은 오는 1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유류 피해 특별법안’ 조속 통과와 삼성중공업의 피해배상을 요구기로 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유류피해 대책위 관계자는 “특별법이 이번 국회에 제정되지 못하면 농민들은 두 번 죽는다”며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만큼 피해 어민들의 유일한 희망인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에 상정된 특별법과 관련된 법안은 통합민주당 및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이 마련한 4개 법안과 2개의 청원 등이 논의 중이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생활 게시판

화촉

- ▲정염철씨 삼남 현수군 장덕기씨 장녀 수연양=16일(토) 낮 12시30분 메리어드 웨딩홀 1층 사파이어홀 ▲김정일(세무법인)씨 장남 성운(UCLA 이미지처리원장)군 나명숙씨 장녀 남지현(서울 일산병원 의사)양=17일(일) 낮 12시 50분 프라도호텔 다이아몬드홀.

부음

- ▲이수만씨 별세 강조(프로축구 광주 상무 감독)씨 부친상=발인 16일(토) 서울 현대아산병원 장례식장 34호, 011-9920-8844. ▲조청규씨 별세 태성(회사원)·성호(·)·진희(이조은치과원장)·미희씨 부친상 양영균(의

- 사)씨 부부상=발인 16일(토) 금호장례식장 301호, 227-4382. ▲이기철씨 별세 민재(출판업)·명철(자영업)·영숙·숙희(보림설계사)씨 부친상 서상관(농업)·니명호(건설업)씨 부부상 최희수·순영희(여린이집 교사)씨 시부상=발인 16일(토) 송정장례식장, 941-4400. ▲문광래씨(전 국제로타리성운(UCLA 이미지처리원장)군 나명숙씨 장녀 남지현(서울 일산병원 의사)양=17일(일) 낮 12시 50분 프라도호텔 다이아몬드홀. ▲임영복씨 별세 우우(알리안츠제일생명 외무기회부 차장)·진우(동원에프엔비CF지점장)·정화·명숙씨 부친상 유창석(신도주방장 공무부장)·김성복(도드람포크 지점장)씨 부부상=발인 17일(일) 조선대학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

“영어 공교육 대입 자율화 재검토해야”

전국 교육대학생 대표자협

전국 교육대학생 모인인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15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수위가 발

표한 새 교육제도방안은 결국 학교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갈 것”이라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교대생들은 “인수위의 ‘3단계 대입 자율화 방안’과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는 그렇지 않아도 치열한 입

시경쟁과 성인에까지 확대된 영어 열풍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교육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없이 추진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교대생들은 또 인수위의 국립대 법외 대학에 대해서도 “등록금 인상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인수위가 대학 교육마저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고 규탄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산행안내 2월 17일(일) ▲올타리산악회 춘남 사대산 2월 17일(일) 8시 백운동 극지호텔에서 출발(이회관 안방원 KT 경우) ※다음카페:올타리산악회 T.010-5500-3598 ▲한울산악회 진도 남당산 2월 17일(일) 극지호텔에서 출발(이회관 안방원 후산) ※다음카페:한울산악회 T.011-646-3371, 011-636-9829 ▲광주원산악회 현수 운성사(시산재) 2월 17일(일) 8시 30분 출발(광주역, 구암동) ※다음카페:한울산악회 T.011-647-7079, 010-4609-3619 ▲광주우뚱회 정담(은주) 허봉산-국시대 2월 17일(일) 8시 30분 출발(이회관 안방원) ※다음카페:광주우뚱회 T.011-9600-5364, 019-666-9498 ▲보리산악회 영암(해)남대산, 가막산, 흑룡산 2월 17일(일) 8시 30분 출발(광주역, 구암동) ※다음카페:보리산악회 T.011-6915-7796 ▲무등산악회 해남 대마산 2월 17일(일) 동대병원에서 출발(이회관 안방원) ※다음카페:무등산악회 T.011-602-6278 ▲나시산악회 시산재(이회관)→삼산 2월 17일(일) 8시 출발 ※다음카페:cafe.daum.net/gwmsar T.266-7223 ▲빛고을 외오름 산악회 해남 두봉산 2월 17일(일) 8시 40분 출발(고려시립대, 삼산중점) ※다음카페:외오름 T.011-647-7139, 010-5036-1138, 010-6601-9774 ▲광주지구 라이온스 산악회 동명 마곡산 2월 17일(일) 오전 8시 마연빌딩 후문 주차장(해장) ※다음카페:cafe.daum.net/kjwhitetiger T.011-624-5005 ▲광주한빛산악회 태백산 2월 17일(일) 회담 2만원

7시 유주체육관 (동정 광워) 2호차 7시30분 노스케이프 단정(이회관) 경우 ※다음카페:노스케이프산악회 T.010-8000-1666 ▲광주도요산악회 부산 남정산 2월 23일(토) 유주체육관 6시30분 출발(광주역, 내원리 주차장) http://cafe.daum.net/gwangjujudo T.011-608-4267, 011-634-2044 ▲광주금강산악회 지도 지도 4명산 2월 23일(토) 유주체육관 7시30분 출발(문어회관 후문) ※다음카페:광주금강산악회 T.017-603-4900, 011-624-8804 2월 24일(일) ▲광주원산악회 여수 개도(봉화산) 2월 24일(일) 유주체육관 6시30분 출발(광주역, 한국사립대) ※다음카페:cafe.daum.net/kjwhitetiger T.011-624-5005 ▲나시산악회 수포 →가야산 2월 24일(일) 유주체육관 6시 출발 ※다음카페:cafe.daum.net/gwmsar T.266-7223 ▲요산회 중독제천 임야산 2월 24일(일) 6시 유주체육관 출발 T.016-611-1579 ▲광주비두리산악회 고을 신선대, 용연산 2월 24일(일) 8시 유주체육관 출발 ※다음카페:광주비두리산악회 T.011-649-0871 ▲광주산악회 기해 용지봉, 관원 마유산 2월 24일(일) 대어광장 8시 출발(동광주사승출발) ※다음카페:cafe.daum.net/94psmiclub T.267-5307, 010-4616-1460 ▲메이리산악회 순주 금강산 2월 24일(일) 8시 시정 출발(문어회관) 경우 ※다음카페:cafe.daum.net/mkyw T.011-601-2894

공시최고 아래까지 증서의 소지인은 공시최고기일인 2008. 5. 19. 15:00까지 이 법원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를 게을리하면 권리를 상실하여 증서의 무효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2008년 2월 16일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판사 김윤정

= 개원 40주년 기념 2월 3월반 특별이벤트 = 공인중개사 수강료 전액무료 합격률 전국 1위의 유명강사진이 합격을 예약합니다!! 40년 전통의 전남고시학원 236-2467~8 (전남여고 건너편)